

식량위기국 난민, 취약계층 등에 대한민국 쌀 10만톤이 지원된다

- 4월 17일 군산항에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5→10만톤) 첫해 기념행사 개최
- 아프리카·아시아 중동 11개국의 난민, 영양결핍상태 취약계층에 우리쌀 10만톤 지원
- 식량원조와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17일(수) 전북 군산항에서 유엔 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을 통한 식량원조 규모 2배 확대 첫해를 기념하는 출항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출항식은 지난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후속 조치로 식량원조 물량을 올해부터 두 배로 확대(5만톤 → 10만톤)하고, 지원국가도 아프리카 등 11개국으로 확대 지원하는 첫해를 기념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유엔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여 매년 5만 톤의 쌀을 아프리카 등 5개국에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라오스를 제외하고 아프리카 5개국과 방글라데시, 아프가니스탄을 추가하여 11개국*에 3개월 간 약 260만명의 난민, 기아 등 영양결핍 상태에 있는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인 쌀 10만톤을 지원한다.

* (아프리카 8개국) 기니비사우,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 모잠비크, 시에라리온,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아시아 2개국)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중동 1개국) 예멘

이번 군산항에 선적된 15천톤의 쌀은 5월 3일 방글라데시로 출항하여 8월부터 콕스바자르 및 바산지역 로힝야 난민(116만명)에게 공급될 예정이며, 목포, 울산, 부산신항에서도 85천톤의 쌀이 6월말까지 출항하여 11개국에 순차적으로 지원된다.

* (군산항) 방글라데시, 케냐, 우간다, (목포항) 마다가스카, 모잠비크, 예멘
(울산항) 기니비사우, 모리타니,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부산신항) 아프가니스탄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쌀 생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벼 종자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수확량이 높은 벼 종자*를 생산하고 농가에 보급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 이스리(ISRIZ)-6,7 품종은 헥타르(ha) 당 5~6톤 생산(아프리카 평균 1.5~3톤)

송미령 장관은 “우리나라는 반세기만에 식량원조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 식량원조 뿐만 아니라 케이(K)-라이스벨트 사업도 지속 확대해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불임 1. 식량원조 수원국별 지원 물량
2. 식량원조 추진체계도

담당 부서 <총괄>	식량정책관 식량정책과	책임자	과 장	변상문 (044-201-1801)
		담당자	사무관	김일수 (044-201-1826)
<국제협력>	국제협력관 국제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용호 (044-201-2031)
		담당자	사무관	이은경 (044-201-2038)



붙임1
식량원조 항구별 출항계획

선적항 (물량, 톤)	수원국 (시작연도)	물량(톤)	출항(예정)일자
군산항 (39,000)	방글라데시 (²⁴ 년 신규)	15,000	5.3(금)
	케냐 (¹⁸ 년)	21,000	6.8(토)
	우간다 (¹⁸ 년)	3,000	6.8(토)
목포항 (31,002)	마다가스카 (²⁴ 년 신규)	10,002	4.28(목)
	모잠비크 (²⁴ 년 신규)	3,000	4.28(목)
	예멘 (¹⁸ 년)	18,000	6.18(화)
울산항 (25,102)	기니비시우 (²⁴ 년 신규)	2,400	5.5(일)
	모리타니 (²⁴ 년 신규)	6,720	5.5(일)
	시에라리온 (²⁴ 년 신규)	2,400	5.5(일)
	에티오피아 (¹⁸ 년)	13,582	6.11(화)
부산신항 (4,896)	아프가니스탄 (3항차)	4,896	4.19(금), 5.4(토) ,5.24(금)

붙임2
식량원조 추진체계도
